

교회의 존재 목적

성경말씀: 엡4:1-16

오늘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 왜 교회를 하는가? 왜 교회에 오는가?

무슨 일이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과가 좋지 않다. 여기 400여 명이 모여 있다. 무엇을 위해? 편해서, 좋은 말씀, 헌금 강요 없고 자유로워서, 교회를 해 보려고, 남겨주려고……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 1: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2장 8-10절에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고 3장 5-6절에서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는 신비를 이야기함. 그리고는 9-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야기함. 이처럼 교회는 위대하고 웅장한 스케일의 기관, 하나님의 기관(가정, 이스라엘, 교회)이 모두 신비이고 오묘한 뜻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걸어야 한다.
- 2: 믿음 생활할 때의 가져야 할 자세, 겸손(lowliness),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참아주는 것, 모두 예수님의 특성
- 3: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화평의 때는 띠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면 화평이 깨진다.
- 4-5: 하나(one)가 대단히 중요하다: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러므로 지역 교회 역시 한 방향과 한 목표를 가져야 화평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120년 전 개화기에 국론 분열, 하나가 깨짐, 나라를 잃고 고생함. 해방 이후에도 둘로 나뉘, 지금도 120년 전 개화기와 마찬가지로 국론이 분열되어 하나가 깨짐, 어쩌면 이것은 우리 민족의 속성,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사이비 이단종파가 많은 나라 없음. 민주주의를 오래 경험하지 못한 탓에 자유가 방종으로 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감지됨.
- 7-11: 교회의 하나 됨과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면서 땅에 있는 교회에 선물을 주고 가심. 11절의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바울), 목사 겸 교사,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은 뒤의 2개, 특히 목사 겸 교사, pastor and teacher, 복음 전도자는 한국에 거의 없지만 미국에는 많음
- 12: 목사 겸 교사를 주신 목적
 - (1) 성도들을 완전하게 함: 성경에 나오는 완전함의 의미,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어떤 목적에 합당하게 되는 상태
 - (a) 창6:9 노아, 그의 세대에서 완전한 자
 - (b) 딤후3:16-17,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므로 목사는 모든 성경 기록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행20:26-27). 특히 편식하지 않도록 모든 계획을 다 말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목회 목표
 - (c) 목사가 항상 귀에 듣기 좋은 설교만 할 수 없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설교해야 한다. 그것이 고린도전후서이다.
 - (2) 섬기는 일을 하게 함: 교회의 지체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릴 때는 섬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섬기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막10:45를 기억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듯이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다. 점심 식사 및 설거지, 예배 진행, 방송, 미디어, 주차, 청소, 교사, 찬양대, 반주, 지휘, 서점, 도서관, 커피, 찬송가, 찬양집 정리
 -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성도들은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리하도록 목사는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려는 성도는 그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깨달은 뒤 그 지역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 일을 위해서는 지역 교회의 목표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면 최선을 다해 몸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왕상3:16-28, 두 창녀 이야기, 참 어머니는 생명을 지키려고 아들을 내준다. 가짜는 죽이라고

한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혼의 자유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교회 문화, 내게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이 귀중한 것들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고 세우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 의견, 주장, 생각이 다를 때에 항상 이 점을 생각해야 한다. 성경과 교회를 세우려는가, 아니면 깨뜨리려는가?

(4) 우리 교회의 목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정착시키고 성경적 교회 문화를 세우는 것,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 성경, 비성경적인 교회 문화

13: 이 결과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키의 장성한 분량

14: 그 결과 어른이 되어 교리의 모든 바람에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음. 누가 무어라 비방하고 험담해도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확실한 결정을 따르게 됨. 간교한 술수를 사용한다(딤후4:3-4). 다시 말하지만 한 사람이나 교회를 평가할 때의 잣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개인이나 교회를 통해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른 성경이 전파되는가? 주님이 영광을 받는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연합한 성도들이 기뻐하는가?

15: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아가페 사랑의 특징, 고전13:5-6). 모든 일에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에게 까지 자라야 한다. 그분은 이 몸의 머리이다. 목사와 성도와 온 교회의 목표: 그리스도에 다다른 것, 모든 생각과 판단과 언행이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분이 아니다. 마음이 상하여 겸손하게 나오는 자는 누구나 받아주시지만 법의 틀로, 자기 생각 속에서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은 받지 않는다. 특히 위선자와 교만한 자를 주님은 가장 미워하신다.

16: 그래서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 됨이 필요하다.

결론

지역 교회가 바르게 서려면 화평이 존재해야 한다. 그 화평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데서 온다. 교회가 한 목표를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

(1) 말씀을 통해 성숙해야 한다. (2)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3) 교회를 세우야 한다.

그 결과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성도, 목사, 교회가 될 수 있다(히5:12~6:2).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왜 나는 여기에 오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